



## 미 증시,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 충격 등으로 급락

### 미국 증시 리뷰

7일(화) 미국 증시는 파월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3월 FOMC 50bp 인상 및 최종금리 상향 우려가 증폭된 영향으로 급락 마감 (다우 -1.72%, S&P500 -1.53%, 나스닥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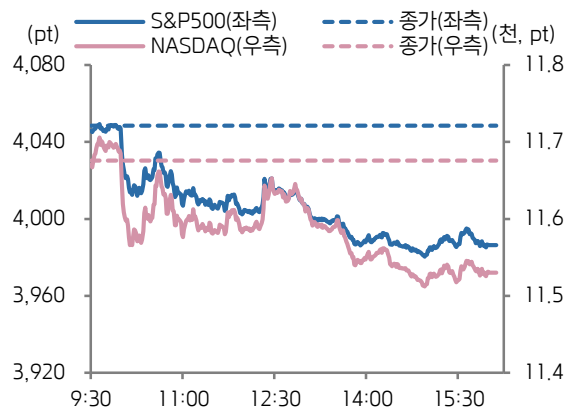
파월 의장은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위한 의회 연설에서 2월 CPI와 고용이 예상보다 강했으며 이는 우리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궁극적인 금리수준이 더 올라가야 함을 의미한다며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연말 최종금리 5.50~5.75% 수준 도달 가능성을 열어둠. 연준이 과도하게 긴축을 하고 있음을 봉주는 데이터는 없으며, 주거비는 거저효과로 인해 하락할 수는 있지만 주거비 제외한 서비스 부문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의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

또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지적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해야 하는 유일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실업률이 급격하거나 엄청나게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 발언 이후 미 국채 2년물 금리가 급등하며 5%를 상회, 2-10년물 금리 역전폭은 역대 최대인 -100bp 기록.

RBA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3.35%에서 3.6%로 0.25%p 인상 결정, 작년 5월 이후 10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단행. RBA 총재는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인 2~3% 달성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현재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계 경제와 호주의 수요 약화를 고려하면 상품 가격 상승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동시에 그동안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번에는 "추가 긴축이 필요할 것"고 언급한 부분에서 시장은 이를 비둘기파적인 결과라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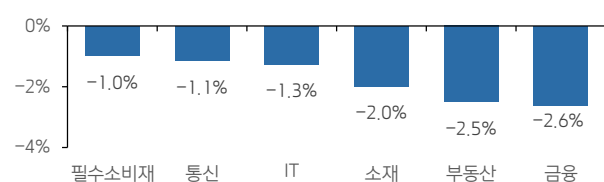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필수소비재(-1%), 통신(-1.1%), IT(-1.3%) 업종의 하락폭이 가장 작았고, 금융(-2.6%), 부동산(-2.5%), 소재(-2%)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음. 애플(-1.45%), 알파벳(-1.34%), 아마존(-0.21%), 메타(-0.21%) 등 빅테크는 하락 약세를 보였으나 추가 긴축 우려 선반영 인식 속 상대적으로 낙폭은 제한.

###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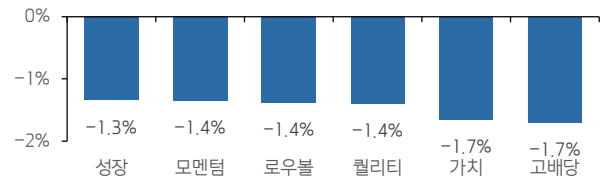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코스피                                  | 2,463.35  | +0.03% | USD/KRW   | 1,299.75 | +0.24%  |
| 코스피 200                              | 319.80    | -0.36% | 달러 지수     | 105.63   | +1.23%  |
| 코스닥                                  | 815.76    | -0.09% | EUR/USD   | 1.05     | +0%     |
| 코스닥 150                              | 1,186.01  | -0.1%  | USD/CNH   | 6.99     | +0%     |
| S&P500                               | 3,986.37  | -1.53% | USD/JPY   | 137.16   | +0%     |
| NASDAQ                               | 11,530.33 | -1.25% | 채권시장      |          |         |
| 다우                                   | 32,856.46 | -1.72% | 국고채 3년    | 3.723    | -4.4bp  |
| VIX                                  | 19.59     | +5.27% | 국고채 10년   | 3.652    | -6.3bp  |
| 러셀 2000                              | 1,878.72  | -1.11% | 미국 국채 2년  | 5.008    | +12.2bp |
| 필라. 반도체                              | 2,962.42  | -1.07% | 미국 국채 10년 | 3.964    | +0.6bp  |
| 다우 운송                                | 14,786.56 | -1.25% | 미국 국채 30년 | 3.872    | -2.1bp  |
| 유럽, ETFs                             |           |        | 원자재 시장    |          |         |
| Eurostoxx50                          | 4,278.96  | -0.81% | WTI       | 77.14    | -4.13%  |
| MSCI 전세계 지수                          | 641.48    | +0.28% | 브렌트유      | 82.9     | -3.81%  |
| MSCI DM 지수                           | 2,764.64  | +0.24% | 금         | 1817.8   | -1.98%  |
| MSCI EM 지수                           | 993.74    | +0.58% | 은         | 19.99    | -4.74%  |
| MSCI 한국 ETF                          | 59.03     | -2.8%  | 구리        | 397.55   | -3.05%  |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        |           |          |         |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   |
|---------------------|---|
| 한국 ETF 및<br>야간선물 동향 | MSCI 한국 지수 ETF 는 2.8%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6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6.4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체크 사항            | 1. 파월의장 발언 이후의 미국 증시 급락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br>2.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국내 성장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br>3. 개인 수급 중심의 종목 장 전개 가능성                           |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시시점부터 결론짓고 가자면, 이번 의회 증언에서의 그의 발언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었기에 일단 3 월 50bp 인상 가능성을 높게 열어두고 가야하는 상황. 그러나 2 월 FOMC 대비 발언 수위가 높아진 본질적인 원인은 1 월 고용 및 물가 서프라이즈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이 같은 데이터 의존적인 연준 성향과 더불어, 미국 증시가 장 초반의 1%대 하락 이후 추가적인 급락이 출현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 이상의 내용들을 조합해보면, 시장은 연준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으며, 연준은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매크로 상 분위기가 혼탁하다 보니, 지수 하방 베팅의 욕구가 높아지는 구간이긴 하지만 10 일 고용, 14 일 CPI, 22 일 FOMC 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방향성 베팅은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번 파월 의장의 핵심적인 증언은 다음과 같음. 1) 최근 예상보다 강한 경제지표는 더 높은 수준의 최종금리를 시사하며, 2)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으나 향후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고 강조. 또 3) 향후 발표 예정인 경제지표가 더 빠른 긴축을 보장하는 경우, 연준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를 할 것이며, 4) 노동시장은 극도로 타이트하다는 등 2 월 FOMC 및 이후의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스탠스에 비해 한층 더 매파적인 성향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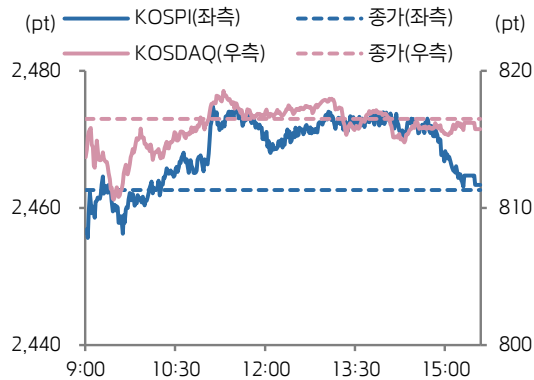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매파적으로 해석됨에 따라, 전일 31%대였던 3 월 FOMC 50bp 금리인상 확률은 70.5%로 큰 폭 급등하면서, 25bp 가 아닌 50bp 가 컨센서스로 급변한 상황. 5.5%(기준금리 상단, 현 4.75%)였던 최종금리 컨센서스도 5.75%로 변함과 동시에, 연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물 건너간 분위기. 그 결과, 미 2 년물 국채금리는 5%대에 진입한 가운데, 달러화는 105pt 선에 도달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바꾼 근본 동인은 데이터에 있었으며, 파월 의장이 상기 언급한 발언 이외에도 “지표 및 경제활동, 인플레 전망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추가적인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더 나아가, 파월 의장 발언 이후 백악관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한달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입장 표명을 했다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 결국, 3월 FOMC 이전 고용, 물가 등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준 행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뒤바뀌면서 불확실성과 조정 압력에 노출될 소지. 다만, 이미 시장이 경험하면서 내성이 생긴 기존 약재의 성격이 짙은 만큼, 가격 조정보다는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기간 조정 국면을 상정해놓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2 차전자주들의 차익실현물량으로 인한 약세 vs 바이오주 강세, 파월의장 의회 발언 경계심리 등으로 혼조세 마감(코스피 +0.03%, 코스닥 -0.09%). 금일에는 파월의장의 매파적인 연설이 유발한 미국 증시 1%대 급락, 원/달러 환율 급등(역외 +16 원), 미국 단기물 금리 상승 등 미국발 약재로 하락세로 출발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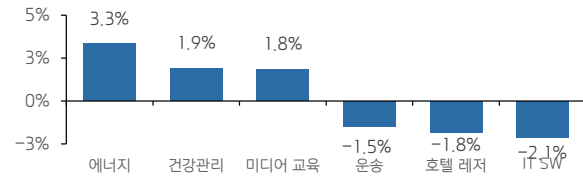
매크로 환경에 민감한 외국인 수급은 단기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만큼, 금일에도 개인 수급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중소형주,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판단. 또한 업황 고유 및 수급 이슈로 인해 최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성장주들은 금리 상승이라는 비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KOSPI &amp;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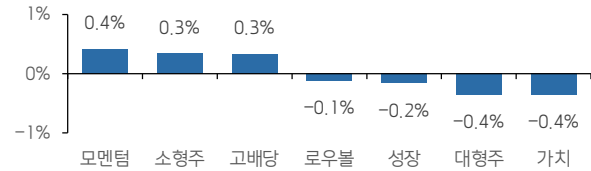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